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444

2009年 8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論文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 美 智

2009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型에 關한 研究 李 美 智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4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　美　智

dCollection @ chosun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關한 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Possessive Passive of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2009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　美　智

Collection @ chosun

李美智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　授　　丁 意 祥　印

2009年　6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ollection @ chosun

目　　次

ABSTRACT ····· ii
第 1 章 序　論 ····· 1
1. 1 研究目的 ····· 1
1. 2 本稿의 構成 ····· 2
第 2 章 日·韓 兩言語 受動의 定意 및 體系 ····· 4
2. 1 日本語 受動의 定意 및 體系 ····· 4
2. 2 韓國語 受動의 定意 및 體系 ····· 9
第 3 章 日·韓 兩言語 所有者受動의 先行研究 및 位置設定 ····· 17
3. 1 所有者受動의 先行研究 및 問題提起 ····· 17
3. 2 日本語 所有者受動의 位置設定 및 下位分類 ····· 18
3. 2. 1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意味關係를 갖는 類型 ····· 24
3. 2. 1. 1 Z가 所有者의 身體的인 部分을 나타내는 類型 ····· 24
3. 2. 1. 2 Z가 所有者의 側面을 나타내는 類型 ····· 26
3. 2. 2 X와 Z가 分離可能한 意味關係를 갖는 類型 ····· 27
3. 2. 2. 1 Z가 所有物인 類型 ····· 27
3. 2. 2. 2 Z가 親族關係인 類型 ····· 28
3. 2. 3 X와 Z 사이에서 볼 수 있는 語彙的 意味關係 ····· 29
3. 2. 3. 1 X가 有情物인 경우 ····· 29
3. 2. 3. 2 X가 無情物인 경우 ····· 33
3. 3 韓國語 所有者受動의 位置設定 및 下位分類 ····· 35
第 4 章 日·韓 兩言語 所有者受動의 對照研究 ····· 40
第 5 章 結　論 ····· 44
參考文獻 ····· 48

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Possessive Passive of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Mi-ji Lee
Advisor : Prof. Eu-sang Jung,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comparison of possessive passiv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ich is representative one of sub-types of passives in an aspect of morphological construction. For the study, it examined sub-types of passive based on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Japanese and Korean passives before making arguments on possessive passive in consideration that different opinions on placing of possessive passives between existing scholars. Based on the results, we analysed suggestions from previous studies on the subject and consider problems caused by placing the possessive passive.

And we compared Japanese possessive passive with Korean to make placing more definite and examine its features and differences to identify similarities an d differences in construction and meaning between them.

For the purposes, we looked at what semantic and constructive features Kore an possessive passive has and whether noun phrases of X and Z which are the

dCollection @ chosun

whole and part in setting detailed types of Japanese possessive passive are inseparable. Then, we divided it into two types based on semantic correlations between X and Z noun phrases.

In case when X and Z noun phrases have inseparable meaning, the relation of Z to X is sub-categorized into「part」and「side」. In case when X and Z noun phrases are separable, they are sub-categorized into 「possessions」and「kinship」

In analysing the case when X and Z are inseparable and the case when X and Z are separable in terms of meaning, the former can be defined as being a direct passive sentence as the subject of the passive sentence is directly affected by movements or actions expressed by verbs. The latter can be defined as being like an indirect passive sentence as Z is directly affected by movements or actions expressed by verbs and the subject of the passive sentence is indirectly affected. For identification of specific meaning relations, this study discussed various semantic correlations between X and Z in two aspects: when the case that X is a compassionate noun and X is an incompassionate noun.

Then, we analysed Japanese and Korean possessive passives based on reviews on constructive and semantic aspects and found that the possessive passive of both countries have similarities in construction as seen in 「X (Ka)/ に(to)/ Zを(eul/reul)~passive verb」, when in examining constructive contents intensively, as possessive passives have both natures of direct passive and indirect passive, they exit in a boundary of the two passives and they are a little different according to placing of possessive passives.

This study identifi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 in constructions through case analyses of Korean and Japanese possessive passive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definitions and systems of possessive passives of both countries.

dCollection @ chosun

第 1 章. 序　論

1. 1　研究目的

독자적인 언어적 特徵을 가지고 있는 日·韓 兩言語는 문법적인 구조와 表現 형식 면에서 매우 유사한 言語라 생각되어져 왔지만, 兩言語의 對照 研究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유사점과 상이점들이 점차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兩言語의 형태, 구문론적인 側面에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日本語의 受動 表現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所有者受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受動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從來의 연구에서는, 受動文을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2분류법과, 두 가지 형태의 중간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所有者受動을 독립적인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설정하여 直接受動, 間接受動, 所有者受動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3분류법이 널리 보편화 되어져 왔다. 하지만 日本語 受動의 하위 유형의 설정 방법에 있어서 2분류법을 취할 경우 所有者受動의 위치 설정이 문제가 되어왔다. 從來의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에 대한 분류에서는 큰 상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所有者受動에 관해서는 분류 방법 및 그 체계에 따라 위치 설정에 관한 견해가 학자마다 차이점을 보여 왔다.

이에, 本稿에서는 所有者受動에 관한 논지에 앞서, 日本語의 受動의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受動의 전반적인 하위유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所有者受動에 있어서의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견해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所有者受動의 기준 설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토대로, 日本語 受動의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所有者受動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 日本語 所有者受動에 대응하는 韓國語 所有者受

dCollection @ chosun

動에 관하여 비교 대조를 통하여 所有者受動의 위치설정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所有者受動의 特徵과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구문상 · 의미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本 硏究의 目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所有者受動의 규정 및 세부 유형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所有者受動에 대한 분석 고찰을 좀 더 의의 있게 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유사성을 보이는 韓國語의 所有者受動(목적격 피동)이 어떠한 구문적, 의미적인 特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전형적인 유형과 주변적인 유형을 각각 분석하여, 차이점을 보이는 주변적인 유형, 즉 日本語의 전체명사와 부분명사가 分離可能한 유형에 대해 고찰해보고, 韓國語에서 일반적으로 성립이 不可能하다고 여겨지는 유형이 실질적으로는 성립이 可能한 유형에 대해서도 서술하기로 한다. 또한 韓國語의 이러한 유형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립 요건 등에 대하여 실례 분석을 통하여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2 本稿의 構成

本稿는 日本語 受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所有者受動」의 위치설정에 관한 從來의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에 착안하여, 日 · 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比較對照를 硏究의 일환으로 受動에 대한 定意 및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特徵을 把握하여 日本語「所有者受動」의 분류 방법 및 위치 설정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所有者受動」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규정해보고,「所有者受動」의 세부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또한 日·韓 兩言語에 있어서의 「所有者受動」에 나타나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構文的인 측면과 意味的인 측면에서 對照 分析하는 것으로 第5章으로 構成되어있다.

第1章에서는 硏究의 目的 및 本稿의 構成에 대하여 서술한다.

第2章에서는, 所有者受動의 위치설정을 파악하기 위해, 그 기본이 되는 日 · 韓 兩言語의 受動의 定意 및 體系에 대해 논한다.

dCollection @ chosun

第3章에서는, 受動의 하위유형이며, 本稿의 핵심 硏究 對象인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 所有者受動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定意 및 하위 유형의 體系, 그리고 위치 설정 등을 중심으로 日·韓 兩言語에 있어서의 所有者受動에 관하여 서술한다. 구성에 대해서는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비교분석에 앞서, 日本語의 所有者受動과 표면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韓國語 所有者受動의 定意 및 特徵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이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체계 및 하위유형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제2章, 제3章에서의 내용을 근거로「所有者受動」에 관한 구문적, 의미적인 면에서의 고찰을 기초로, 日 · 韓 兩言語의「所有者受動」에 관해 對照分析 하기로 한다.

第5章 本稿의 내용에 근거하여 日 · 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관한 對照 硏究를 통해 本稿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기로 한다.

dCollection @ chosun

第 2 章. 日·韓 兩言語 受動의 定意 및 體系

2. 1 日本語 受動의 定意 및 體系

受動文이란 動作 · 作用의 主體가 다른 무언가에 動作 · 作用을 가한 경우, 動作主 즉, 움직임이 발하는 곳을 主役으로 하는 것이 아닌, 움직임을 받는 측, 즉 움직임이 향하는 쪽을 主役으로 하여 事態를 描寫하는 表現을 말한다. 또한 受動은 형태론적인 부분과 구문론적인인 부분, 의미론적인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統合的인 文法 範疇로써 그 構造와 特徵 및 受動을 硏究하는 學者의 見解에 따라 比重을 두는 부문이 달라지게 된다.

受動의 文法的 형식은, 受動의 助動詞「れる·られる」에 의한 受動形을 말 할 수 있으며, 일부의 動詞를 제외한 대부분의 動詞 未然形에 접속하는 助動詞를 말한다.

三上章(1953)은, 受動의 助動詞「れる·られる」와 動詞와의 連結 關係를 중심으로, 受動形으로 성립 할 수 있는 動詞를「能動詞」로 분류, 受動形으로 성립 할 수 없는 動詞를「所動詞」로 분류하고, 能動詞 중에서,「まともな受身」와「はた迷惑受身」모두를 성립 시킬 수 있는 동사를「他動詞」,「はた迷惑受身」만이 성립 가능한 동사를「自動詞」로 분류하였다. 이상을 알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의<표1>과 같다. [1]

動詞の 分流	まともな受身	はた迷惑の受身	動詞の例	動詞の種類
能動詞	○	○	書く、殺す、作る	他動詞
	×	○	死ぬ、泣く、立つ	自動詞
所動詞	×	×	ある、要る、出來る	

<표 1>

1) 三上章(1959)『現代語法序説』,くろしお出版 1979, p.105

dCollection @ chosun

이밖에도 日本語 受動의 形態的 特徵으로 寺村秀夫(1982)는 <표2>와 같이 受動表現을 整理하고 있다.[2)]

語幹이 子音으로 끝나는 動詞 (5단 활용동사 = 1G 활용동사) 語幹 + are-ru 例 死ぬ(sin-u) → 死なれる(sin-are-ru)
語幹이 母音(i,e)로 끝나는 動詞 (1단 활용동사 = 2G 활용동사) 語幹 + rare-ru 例 育てる(sodate-ru → 育てられる(sodate-rare-ru)
불규칙 동사 (변격동사 = 3G 활용동사) する(suru) → される(sare-ru) くる(kuru) → こられる(korare-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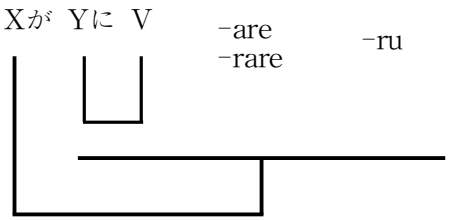
<표 2>

그러나 이러한 形態的 特徵만으로 受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れる·られる」는 受動 뿐만 아니라 可能 · 自發 · 尊敬의 助動詞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助動詞는 受動의 意味를 나타내거나, 可能의 意味를 나타내거나 또는 自發 및 尊敬의 意味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表現들 중에서 어떠한 表現을 受動이라 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述語動詞가 受動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主語에 오는 대상이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등을 받는 다고 하는 意味的인 면에서의 特徵을 충족시켜야지만 受動表現이라 말 할 수 있다. 英語의 受動과 비교해보면 英語에서의 受動의 槪念은, 純粹하게 動作이 행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外部로부터 動作을 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日本語의 受動은 外部로부터 動作을 받거나, 外部의 動作 · 作用의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動作이 動作主體 自身의 意志와는 無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本意로 삼고 있다.[3)]

2) 寺村秀夫(1982)『日本語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p.213

dCollection @ chosun

즉, 寺村(1983)는 어떠한 表現을 受動態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술어동사가 受動態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문적인 特徵을 갖추고, 그 구문적인 구조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意味的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Y : V의 動作 · 事件의 主體

X : 「Y가 V하다」는 것에 의해 影響을 받는 主體

益岡隆志(1982)는 受動文의 완전한 分析을 위해서는 적어도 관여하는 名詞 · 動詞의 形態的인 特徵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形態的인 문제와, 受動文의 구문 구조가 어떠한 構造를 띄고 있으며, 대응하는 能動文과의 구문적인 문제를 어떻게 記述할 것인가에 따른 構文的인 문제, 끝으로 受動文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受動化의 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意味的인 문제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5] 따라서 어떠한 表現이 受動文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술어동사의 形態的인 면 · 構文的인 면 · 意味的인 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益岡(1982)와 寺村(1983)를 중심으로, 어떤 表現이 受動文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此島正年(1973) 『国語助動詞の研究』桜楓社 p.99
4) 寺村秀夫(1983) 『日本語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p.214
5) 益岡隆志(1982) 「日本語受身文の意味分析」『言語研究』82 日本言語学会 p.48

dCollection @ chosun

① 형태적 조건 : 動詞에 「れる·られる」라는 助動詞가 接續해야 한다.

② 구문적 조건 : 對應하는 能動文을 가지며, 能動文에 있어서 動作 · 作用의 對象인 對格補語가 受動文에 主語로 와야 한다.

③ 의미적 조건 : 主體가 다른 것에 의해 作用이나 影響을 받아야 한다.

2. 1. 1 受動의 下位類型의 種類와 意味・用法

(1) 直接受動

[1] 구문적인 면 :「直接受動文」은 능동문 안의 非ガ格의 共演成分이 ガ格으로 전환되며, 직접 수동의 예문 (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당 능동문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능동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와 수동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가 같은 수동을 말한다.

[2] 의미적인 면 :「直接受動文」은 기본적으로 능동문과 같은 사상을 나타내며, 「直接受動文」의 ガ格(主語)은, 述語動詞가 나타내고 있는 동작 및 작용에 관계하여 直接的인 영향을 받고 있다.

(1) 太郎が　次郎に　殴られた。（직접수동문）

(1') 次郎が　太郎を　殴った。　（능동문）

(2) 間接受動

「間接受動」은「直接受動」과는 달리 구문적으로 대응하는 능동문을 가지지 못하며, 예문 (2)(2')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수동문의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는 기본문장에서의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에 비해 그 수가 하나 증가한다. 이는 간접수동문의 주어에는 기본문이 나타내는 사태의 성립에 관여하지 않는 논항(第三者)이 위치함을 나타낸다.

dCollection @ chosun

[1] 구문적인 면 : 基本文을 형성하는 必須構成要素의 수에 비해「間接受動文」에서는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하나 증가하여, 새롭게 도입된 構成要素를 수동문의 ガ格(主語)으로 세우고, 그 基本文이 형성하고 있던 사상을 그 외의 構成要素로 취하는 複合構造를 이루고 있다.

[2] 의미적인 면 :「間接受動文」은 基本文이 나타내고 있는 사상을「間接受動文」이 나타내는 全體事象의 한 構成要素로 포함시키는 複合事象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間接受動文」의 ガ格은 動詞가 나타내는 작용으로부터 間接的이며, 주관적인 영향 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僕ハ雨ニ降られた。 (간접수동문)

(2') 雨ガ降った。 (기본문)

(3) 所有者受動

「所有者受動」이란, 基本文의 ヲ格이나 ニ格 共演成分의 所有者를 나타내는 명사를 ガ格으로 내세우며,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구문적 · 의미적인 특징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受動表現이다.

[1] 구문적인 면 :「所有者受動文」은 예문(3')(4')의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에 비해 예문(3)(4)에서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가 하나 더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의미적인 면 : 수동문의 주어가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 작용으로부터 예문(3)과 같이 直接的인 영향을 받는 유형과, (4)와 같이 間接的인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3] 所有者와 그 所有物과는 分離不可能한 所有關係를 이루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3) 浩は先生に頭を殴られた。

(3') 先生が浩の頭をなぐった。

(4) 浩は先生に子供を殴られた。

(4') 先生が浩の子供を殴った。

2. 2 韓國語 受動의 定意 및 體系

日本語의 受動表現 형식은 受動의 助動詞「れる·られる」로 한정되어 있는 단일한 문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韓國語에서의 受動 表現법은 동사의 受動形 및 受動的 意味를 가지는 語彙 구문까지도 포함시킨다는 多樣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日本語의 受動表現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최현배(1989)는 被動을 "남의 힘을 입어 되는 움직임"이라 定意하고 利害被動, 可能被動, 自然的被動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중 利害被動이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6] 또한 被動詞에 대해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定意하였다. 예문(5)(5')를 그 예로서「잡았다」의 제움직임에 대해 「잡히었다」의 被動 형태를 사용하였다.

(5) 그 사람이 순경한테 잡히었다

(5') 순경이 그 사람을 잡았다

예문 (6)~(8)을 受動의 意味面에서 보면 主語가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受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입다, 받다, 당하다」는 원래 被動詞가 아니라 동사 그 자체가 受動의 의미를 가지는 他動詞이다. 따라서

6) 최현배(198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P.422

dCollection @ chosun

受動이 文法的 범주의 하나인 態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意味的 特徵 이외에도 형태적 · 구문적인 特徵을 갖추어야 한다.

(6) 태풍으로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7) 소라는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8) 적에게 재산을 약탈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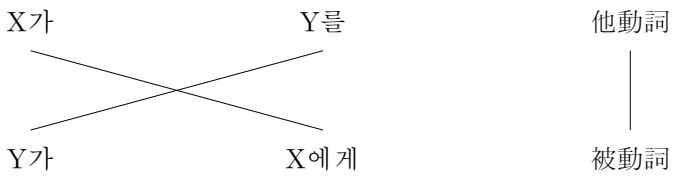
이처럼 韓國語의 受動은 원칙적으로 他動詞를 대상으로 하며, 上記의 방법 이외에도 他動詞의 語幹에 受動接尾辭 「이, 히, 리, 기」가 붙어 形態的인 변화를 통해 他動詞가 被動詞로 된다고 定意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他動詞 語幹 + 受動接尾辭 「이, 히, 리, 기」→ 被動詞

<표 3>

(9) 개가 닭을 쫓는다.
(9') 닭이 개에게 쫓긴다.

예문 (9)(9')은 동일한 사항을 다른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낸 表現으로 이 둘 사이에는 체계적인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9)의 目的語가 예문 (9')에서 主語로 등장한다. 이는 예문 (9)의 主語가「~에게」를 취하여 동작주를 나타내는 동시에, 動詞의 語幹에는 受動接尾辭 「~기」에 의해 변화가 일어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그러나 上記의 의미 · 형태 · 구문론적인 條件을 만족시키는 전형적인 受動의 형태를 지닌 예문(9')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례 또한 韓國語에서는 受動文으로 인정되고 있다.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였다.
(10')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존경받았다.
(11)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
(11')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전형적인 受動文이라 불리는 예문(9')과 (10')(11')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의미 · 구문적인 측면에서는 受動의 特徵은 가지고 있으나, 形態的인 면에서는 受動接尾辭에 의한 形態의 變化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법 범주는 意味와 形式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형식만을 중시하여 예문 (10')(11')을 受動態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문의 경우는 本稿에서는 受動態의 일부 유형으로 취급하기로 하겠다.

2. 2. 1 受動接尾辭「이, 히, 리, 기」에 의한 受動形

受動接尾辭「이, 히, 리, 기」에 의한 受動形은 韓國語의 受動表現 형태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으로,「受動補助語幹」이라 불리는데, 「이, 히, 리, 기」가 동사의 語幹에 첨가되어 受動의 意味를 나타내는 형태를 말한다. 「규칙적인 受動」또는「제일유형」[7]이라 부른다. 다음의 예문 (12)에서는 韓國語 受動化의 규칙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2) a. 경기 침체로 월급이 깎이다.
b. 쥐가 고양이에게 먹혔다.

7) 김영일(1980)「國語被動構文의 硏究」『부산교대논문집』 p.44

dCollection @ chosun

c. 유리창이 바람에 흔들린다.

d. 아이가 엄마에게 안긴다.

예문 (12)에서는 「깎다-깎이다」, 「먹다-먹히다」「흔들다-흔들리다」「안다-안기다」 의 대립관계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韓國語 受動化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受動接尾辭「이, 히, 리, 기」는 他動詞의 語幹 末音의 音韻特性이라는 제약에 의해 네 개의 接尾辭 중 어느 하나에 접속하게 된다. 즉, 受動接尾辭는 같은 音韻 環境에서는 하나만 나타나는 相補的인 分布를 이루는 것이다.[8] 예를 들어 타동사「안다」의 被動詞는「안기(*이, *히, *리)다」만 허용되므로, 음운특성의 制約을 강하게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受動接尾辭와 先行動詞의 語幹末音과의 연결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

8) 배희임(1985) 『국어피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26~27

dCollection @ chosun

受動接尾辭	語幹末音	動詞의 例
-이-	모음, ㅍ, ㅎ, ㄲ, ㄼ	쓰다 → 쓰이다 덮다 → 덮이다 쌓다 → 쌓이다 닦다 → 닦이다 핥다 → 핥이다
-히-	ㄱ, ㅂ, ㅈ, ㄺ, ㄻ	찍다 → 찍히다 뽑다 → 뽑히다 잊다 → 잊히다 읽다 → 읽히다 밟다 → 밟히다
-리-	ㄹ, ㄷ, ㄾ	헐다 → 헐리다 걷다 → 걸리다 뚫다 → 뚫리다
-기-	ㄴ, ㅁ, ㅅ, ㅊ, ㄶ, ㅈ	안다 → 안기다 감다 → 감기다 벗다 → 벗기다 쫓다 → 쫓기다 끊다 → 끊기다 찢다 → 찢기다

<표 4>

2. 2. 2 受動補助動詞「지다」의한 受動形

韓國語의 受動化에는 2.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受動接尾辭 「이, 히, 리, 기」에 의한 방법을 受動表現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가장 규칙적이고 직접적인 受動表現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受動表現 以外에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表現방법으로서 「受動補助動詞」와 「受動助動詞」로 불리는 「~지다」를 첨가하여

dCollection @ chosun

나타낼 수 있는 受動法 등이 있다. 두 表現법의 차이라 함은「이, 히, 리, 기」에 의한 受動法은 動詞의 동작 자체에 대한 受動을 위한 것이고, 「~지다」에 의한 受動法은 행위의 상태에 대한 受動을 위한 受動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실제 受動表現에 있어서는 動作受動만을 필요로 하고 狀態受動을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며, 반대로 狀態受動인 「~지다」에 의한 受動法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13) 인부가 오래된 건물을 허물다.

(13') 오래된 건물이 인부에게 허물어지다.

2. 2. 3 접미사「되다·받다·당하다」에 의한 受動形

接尾辭「되다 · 받다 · 당하다」에 의한 受動은「~하다」類의 動詞의 어간에 補助動詞「되(다) · 받(다) · 당하(다)」등의 어휘적 수동이 대치되어 만들어지는 受動表現形態로「擬似被動」이라고도 불린다.[9] 이 受動法은 구문상의 受動文이라기보다는 意味 중심의 槪念上의 受動文이라 하겠다.

(14) 결박하다 → 결박되다
존경하다 → 존경받다
강금하다 → 강금당하다
꾸중하다 → 꾸중듣다

즉 위와 같이 受動의 意味를 가진 보조동사가 차용되어 대치되는 형태를 말한다. 「~하다」類 동사 대신에 「~되다」에 의해 直接受動化가 可能하지만, 불분명한 動作性으로 인해 소극적인 直接受動化가 된다. 그러므로 강한 動作 受動을 요할 경우에는 이러한「~되다」에 의한 受動 대신에 동작성이 강한 動詞를 借用하여 직

9) 이상억(1970) 「국어의 사동과 피동구문」

dCollection @ chosun

접적이고, 적극적인 受動文의 被動詞로 사용해야 한다.

補助動詞의 선택은 先行 동사성 명사의 意味 資質과 後行 受動性 動作動詞와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랑되다」「체포받다」「존경당하다」등은 적합하지 않은 表現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체포되다」「체포당하다」와 같이 先行 동사성 名詞에 두 가지 이상의 後行 受動性 동작동사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경향성을 띄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합관계의 경향성을 성광수(1976)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10)]

a. [감시, 존경, 사랑,……] + 받다 ……[動作性 · 受動性]
b. [소박, 야단, 도적,……] + 맞다 ……[結果的 事件]
c. [발전, 추진, 선언,……] + 되다 ……[可能的 受動과 自然的 受動의 意味]
d. [체포, 결박, 감금,……] + 당하다 ……[動作性 · 受動性]

선행 動詞性 名詞가 ㄱ과 같이 抽象的인 行爲性의 性格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받다」가 연결된다. ㄴ의「~맞다」는, 결과적인 사건의 경향성을 나타내며, ㄷ의 「~되다」는, 可能的 受動과 自然的 受動의 意味를 나타낸다. 끝으로 ㄹ의「~당하다」는 外形的인 動作에 대한 非自發的인 强制性의 性格을 나타내는 경우에 「~당하다」가 연결된다. 이러한 韓國語 受動형의 일반적인 용법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語의 受動을 나타내는 受動形은, 動詞의 種類 및 가지고 있는 意味에 따라 ① 受動接尾辭「이, 히, 리, 기」와 ② 受動補助動詞「~지다」, ③「~하다」동사의 「~하(다)」대신에 접미사「되(다) · 받(다) · 당하(다)」등이 대치되어 만들어지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10) 성광수(1976) 「韓國語 문장表現의 양상」p75~76

dCollection @ chosun

以上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第2章에서는 本稿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日·韓 兩言語「所有者受動」의 對照分析에 앞서, 「所有者受動」이 日本語 受動의 전반적인 體系 속에서 어떠한 位置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日·韓 兩言語의 受動의 定意및 體系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第2章의 내용을 바탕으로 第3章에서는 兩言語의「所有者受動」의 定意 및 下位 類型의 體系, 位置 설정 등을 중심으로 日·韓 兩言語의「所有者受動」이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比較 分析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第 3 章. 日·韓 兩言語 所有者受動의 先行研究 및 位置設定

第3章에서는 受動文의 下位類型 중 本稿의 核心的 고찰 대상으로서 受動文의 下位類型 중 하나인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本 研究를 위해 우선, 종래의 所有者受動에 관한 先行研究를 토대로 所有者受動이 受動이라는 범주 속에서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位置設定 및 所有者受動의 전체적인 體系에 관하여 논하고, 日本語 所有者受動과 표면적으로 類似性을 보이는 韓國語 所有者受動의 定意 및 그 特徵에 대해 언급하며, 所有關係를 가지고 있는 構成成分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研究를 통하여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이 갖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1 所有者受動의 先行研究 및 問題提起

日本語 受動의 分類는「直接受動」과「間接受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정하는 2분류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분류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受動表現도 존재한다.

(15) 田中は 蜂に 顔を 刺された。 (受動文)
(15') 蜂が 田中の顔を 刺した。 (能動文)

(15)(15')의 예문처럼, 受動文의「ガ」格 명사가 能動文의「ヲ」格 명사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능동문의「ノ」格이 受動文의「ガ」格(主格)이 되는 것을「所有者受動」또는「持ち主の受身」라고 하여 從來의 2분류법의 中間的인 존재로써「所有者受動」을 독립적인 하나의 下位類型으로 설정하는 3분류법이 알려져 있다.

dCollection @ chosun

(16) 벌이 다나카의 얼굴을 쏘았다. (能動文)

(16') 다나카가 벌에 얼굴을 쏘였다. (受動文)

한국어의 경우는 예문 (16)(16')와 같이 能動文의 屬格「의」가, 受動文의 主格인「가」를 취함으로써 受動文의 主語가 되며, 目的格助詞「을,를」이 기존의 형태 그대로 受動文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목적어 있는 피동」이라 하였다.

이처럼 日本語의「所有者受動」과 韓國語의 所有者受動에 해당하는「목적어 있는 피동」은「Xが(가) Yに(에게/한테) Zを(을/를)~受動動詞(피동사)」와 같이 表面上의 형태로는 兩言語가 類似性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구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兩言語의 受動의 性格은 적지 않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第3章에서는 日本語의「所有者受動」과 이에 對應하는 韓國語의「목적어 있는 피동」과의 對照比較를 통해서 兩言語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2 日本語 所有者受動의 位置設定 및 下位分類

日本語의「所有者受動」에 관한 주된 연구로서 松下大三朗(1928)을 비롯하여 三上章(1953), 鈴木重幸(1972), 寺村秀夫(1982), 森山卓朗(1988), 工藤眞由美(1990), 仁田義雄(1992), 山內博之(1997), 丁意詳(1997)등을 들 수 있다.

松下大三朗(1928)는「所有者受動」을「所有物被動」이라 命名하고, 예문 (17)(17')과 같은 受動文을 제시하였다.

(17) 人、盜賊に物を偸まる。

(17') 小児、蜂に顔を螫さる。

dCollection @ chosun

三上章(1953)는, 受動을「まともの受身」와「はた迷惑の受身」의 두 種類로 分類하였으나 三上章는 索引에서 受動文의 주어를 (分身, 部分, 所有物)등으로 分離해서 나타낸「分けての受身」를 내세워 受動을 세 종류로 나누는 方法을 제시하였다.

(18) 己が甲に作品をほめられた。

鈴木重幸(1972)는 受動을 4개로 나누어 分類하였으며, 所有者受動에 대하여「もとになる動きの対象の持ち主を主語として表わした受身である」라고 규정하고, 基本文을 受動文으로 전환 할 때 基本文의 對象語(被所有者)[11]를 受動文에 그대로 남기는 구문을「持ち主の受身(所有者受動)」이라 하였다.

寺村秀夫(1982)는, 受動을「直接受動」과「間接受動」의 2分類용법으로 分類하였으며, 所有者受動은 이 중「間接受動」으로 취급하였다. 寺村는 일반적으로「XがYにZを~られる」라고 하는 構文을 예로 들어, 이 構文이「間接受動」이라 인정되는 경우, 이「Zを」이라고 하는 것이「X」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다. 또한 所有者受動에서는「X」의 身體部分, 肉親, 親族, 所有物, 占有하고 있는 空間들 순으로「被害」의 정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논하고 있다. 즉, X에게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 Y가 작용을 가했을 경우에는,「間接受動文」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森山卓郎(1988)는, 受動을「まともの受身」와「迷惑の受身」로 二分한 경우, 「所有者受動」을「迷惑の受身」의 一種으로 보고 이것을「所有受身」이라 命名하였다. 또한, 森山는「所有受身」라 불리는 특별한 유형으로써「部分の受身」를 설정하였다. 森山가 말하는「所有者受動」은 基本文에서 所有의 관계에 있던 成分이 主語로 오게 되며, 이때의 主語는 動作의 作用과는 關係가 없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

11) 여기서 말하는 對象語, 즉 被所有物이란 高橋(1975)의 분류에 의하면, 肉體的인 部分이나 着用하고 있는 衣服등의 부분, 動作·性質·狀態와 관계하는 側面, 所有者와 所有關係에 있는 물건이나, 所有者와 관계하고 있는 人物등을 말한다.

dCollection @ chosun

(19) 私は泥棒にかばんをとられた。

(19') 泥棒が私のかばんをとった。

예문(19)에서 소유의 관계에 있는「私」가 主語로 설정되어 있지만,「(泥棒が) かばんをとる」라는 상황 자체는「私」와는 直接的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所有者受身」은「間接受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受動文에서 나타내고 있는 事態는「私はかばんをとられた」라는 것으로, 「私はとられた」로 바꿔 말하게 되면 불충분한 表現이 되게 된다. 하지만 被所有物이 主語가 되어 分離不可能한 관계에 있는 경우의 예를 들면,

(20) 私は頭を殴られた。

예문 (20)의「私は頭を殴られた」라는 문장은「私は殴られた」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所有主와 所有物의 관계라기보다는 全體와 部分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어「部分の受身」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部分の受身」은 迷惑(被害)의 意味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예문(21)에서

(21) 子供は母に頭をなでられた。

와 같은 文章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 할 수 있겠다.

工藤眞由美(1990)는, 能動文의 어떤 요소가 受動文의 主語가 된다는 관점에서 受動文을「當事者受動文」과「關係者受動文(不利益受動文)」으로 나누어 分類하고, 所有者受動을 當事者受動文 가운데「間接受動」의 범주 속에 넣고 있다. 그 根據로서, 이러한 유형의 受動文은 主語에 위치하고 있는 자가 構造的으로는 規定語(ノ格)라고는 해도 이미 能動文에서 표시되어있던 것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山内博之(1997)는, 從來의 受動文의 硏究가 所有者受動의 존재를 3分類法의 입장을 취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2分類法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로 인식되어져 왔는데, 山內는「所有者受動」을 ヲ格명사를 수식하는 屬格이 昇格하여 만들어진 受動으로,「屬格昇格型受動」이라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部分の受身」,「親族の受身」,「所有物の受身」의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22~25)의 受動文을「部分の受身」이라 하였다.

「部分の受身」

(22) 太郎は花子にシャツの袖をつかまれた。

(23) 花子は太郎にスカートをひっぱられた。

(24) 太郎は恋人に背広をほめられた。

(25) 花子はクラスメートに弁当箱を笑われた。

다음과 같은 예문 (26)~(28)의 受動文을「所有物の受身」이라 하였다.

「所有物の受身」

(26) 太郎は暴漢に指を折られた。

(27) 花子は太郎に髪を切られた。

(28) お婆さんは孫に肩を揉まれた。

山内博之(1997)는「部分の受身」와 「親族の受身」에 대해서는 단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였으며,「所有物の受身」에 대해서는 복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였다.[12)]

12) 山内(1997)는、「部分の受身」에서는 ガ格 名詞가、「親族の受身」에서는 ヲ格 名詞가, 동사가 나타내는 움직임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용을 받게 되므로, 단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는 直接受動에 보다 가까운 존재라 생각되어져왔다. 한편「所有物の受身」은「XがYにZを～られる」를「Xが[YがZを～る]ことを被る」라고 표기 할 수 있는 복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는 間接受動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丁義祥(1999)은,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은 表面構造를 기준으로 나누면, 다양한 유형의 所有者受動의 構文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丁(1999)은 日本語 受動을 크게「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나누며,「所有者受動」을 독립적인 下位類型으로 분류하지 않고, 構文的, 意味的인 차이에 입각하여「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구분하고 있다.

(29) 花子が太郎に足を踏まれた。
(29') 太郎が花子の足を踏んだ。

日本語의 所有者受動文의 가장 전형적인 구문으로서 예문 (29)를 들었으며, 구문적으로는 예문 (29')에서와 같이 능동 대당문에 있어서 전체 (X)와 부분 (Z)가「X の Zを」이라는 구문 형식을 취하며, 대상인 Z(ヲ格 名詞句)의 소유주인 X가 受動文의 主語가 되는 類型을 말한다. 의미적으로는 전체(X) 명사구와 부분(Z) 명사구가 非分離的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30) 田中は先生に頭を殴られた。 (直接受身)
(30') 先生が田中の頭を殴った。

(31) 田中は先生に子供を殴られた。 (間接受身)
(31') 先生が田中の子供を殴った。

構文的으로 예문(30)~(31')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XガYニZヲ~ラレル」와 같은 構文形式을 가지는 유형 중에서, 間接受動과 같이 基本文 (30')(31')에서 動詞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에 비해 受動文 (30)(31)에서의 動詞가 요구하는 필수논항의 수가 하나 더 많다고 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意味的으로는 受動文의 主語가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動作 · 作用으로부터 예문(30)과 같이 直接的인 영향을 받는 類型과, 예문(31)과 같이 間接的인 영향을 받는 類型으로 나눠짐을 알 수 있다. 즉 構文的으로 대응하는 능동문에 비해 必須項의

dCollection @ chosun

증감이 나타나지 않으며, 意味的으로는 X와 Z라는 두 개의 명사구가 非分離的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直接受動」이라 부르고, 構文的으로 대응하는 基本文에 비해 必須項의 수가 하나 늘어나고, 意味的으로 X와 Z가 分離可能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間接受動」으로 인식하여,「所有者受動」을「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분류하였다.

以上과 같이 日本語 所有者受動에 관해서는 硏究하는 학자에 따라 그 설정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所有者受動에 대한 확실한 位置設定은 아직까지 명백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하지만 所有者受動의 중심이 되는 구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YがXのZを～スル」라는 형태로부터 所有者인 X를 主語로 하는「XがYにZを～サレル」라는 구문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所有者受動을 構文的인 입장에서「迷惑の受身」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意味的인 입장에서는「間接受動」에 가깝다는 側面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所有者受動이 단독으로 獨立的인 위치를 갖는 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대개는「直接受動」과「間接受動」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日本語 所有者受動에 對應 가능한 韓國語 表現에 대해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Y는 X의 Z(을)를 ～ V」구문에 對應하는 「Y는 X에게 Z(을)를 ～ V(ら)れる」의 구문을 日 · 韓 兩言語 「所有者受動」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고, 이 경우, 「X」와 「Z」와의 연관 방법에 대해서 鈴木(1977)는, 「Z(피소유물)」을 다음의 <표5>와 같이 분류 하고 있다.

1) 所有者의 部分을 나타나는 것 : 육체적인 부분이나 착의하고 있는 의복 등.
2) 所有者의 側面을 나타내는 것 : 변동・성질・상태 등.
3) 所有者를 나타내는 것.
4) 所有者와 연관성이 있는 人物을 나타내는 것.

<표 5>

dCollection @ chosun

「X」와 「Z」는 分離性의 有無에 따라 「分離不可能한 것」과 「分離可能한 것」의 두 개로 나뉘며, 이를 세분화 하면「分離不可能한 것」에는 所有者의 육체적인 「部分」이나, 움직임・성질・상태 등의「側面」을 나타내는 것이 있으며,「分離可能한 것」으로는 所有者의 소유물이나 입고 있는 의복 등, 所有者와 관련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3. 2. 1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意味關係를 갖는 類型

X와 Z가 非分離的인 소유관계를 가진 유형은 그 속성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Z가 사람의 신체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사물에 있어서 分離不可能한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일 때 非分離的인「部分」이라 할 수 있으며, Z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감정 등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에는 非分離的인「側面」을 나타낸다고 말 할 수 있다. 以下에서는 X와 Z명사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所有關係, 즉, X와 Z의 分離可能 여부를 바탕으로 한「所有者受動」을 크게 非分離的인 유형과 分離的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ヲ격 명사구인 Z의 意味的 屬性의 차이에 따라 非分離的인 유형을 다시「部分」및「側面」으로 세분화하고, 分離的인 유형은 다시「所有物」및「親族關係」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特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 2. 1. 1 Z가 所有者의 身體的인「部分」을 나타내는 類型

(32) 足の指を蚊に食われてなかなか安眠できなかった。
(←蚊が足の指を食った。)

(33) 太郎が次郎に髪をきられた。
(←次郎が太郎の髪を切った。)

(34) わずかな反応があったように思うけれど、すぐにお医者さんに背中を叩かれました。

dCollection @ chosun

(←お医者さんが(私)の背中を叩いた。)　　＜愛をください＞

(35)　オカちゃんの葬儀にクラス全員で参列した帰り道、俊治は石川に肩を後ろからつかまれ振り向いたところをいきなり殴られた。　＜その日＞

(←石川が俊治の肩をつかむ。)

(36) そこには風雨に字を消された数数の墓石がある。　＜ブン＞

(← 風雨が墓石の字を消す。)

(32)~(35)는 X와 Z가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라는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진 「所有者受動」이고 (36)는 X와 Z가 사물과 그 사물의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진「所有者受動」이다. 이와 같은 예문은 모든「X」가 유생물이며, 「Z」는 그 유생물의 신체 일부로, 그 신체의 所有主인「X」를 受動文의 主語로 채택하는 전형적인 所有者受動이라 하겠다.

(37) 父は壁からお祖父さんの似顔絵を外した。

(←아버지는 벽에서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떼어냈다。)

(38) お祖父さんは父に壁から似顔絵を外された。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벽에서 초상화를 떼어졌다。)

(39) お祖父さんの似顔絵が壁から外された。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벽에서 떼어졌다。)

이들 例文은「X」와「Z」가 分離不可能한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와「Z」의 관계는 「전체ー일부」의 관계라고 하기보다「X」그자체가 바로「Z」라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다. 즉「同一体」의 관계로써, 「전체ー부분」의 관계인 경우에는「部分」의 所有者인「全體」를 主語

dCollection @ chosun

로 내세운 受動文은 자연스런 문장으로서 성립하지만, 「同一体」의 경우에는 X를 主語로 내세운 受動文은 성립하지 않고, 名詞句 (X의Z) 全體를 主語로 내세운 直接受動文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문의 경우는「할아버지의 초상화 (お祖父さんの似顔絵)」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表現하였으며, 피해의식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예문 (37)의 경우, 유생물 X 할아버지(お祖父さん)가 살아 있는 경우는, 이를 主語로 세운 이른바「所有者受動文」은 성립하지만, 이미 죽어 있어 사물로서 파악되는 경우는 受動文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韓國語는 所有者와 被所有物이「同一体」인 경우는 受動文이 성립하지 않지만, 日本語는 所有者의「生死」에 따라, 受動文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3. 2. 1. 2 Z가 所有者의「側面」을 나타내는 類型

(40) さらに、自分が泣いていた姿をこの子に見られ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思ったら、急に心配になった。
(← この子が自分の泣いていた姿を見た。)

(41) 周りの生徒に裸を見られないように、筒形の水泳用バスタオルを頭だけだしてすぽりとかぶる。
(←周りの生徒が(私)の裸を見る。)

(42) 日本は回りをアメリカ軍艦に囲まれている。
(← アメリカ軍艦が日本の回りを囲む。)

(40)~(42)의 ヲ格 名詞句 Z는, 사람(動物) 또는 사물의 動作, 性質, 感情, 狀態, 狀況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非分離的인「側面」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40)의「自分」과「姿」, (41)의「話者」와「裸」[13]는, 사람과 그에 따른 動作, 性質,

13) (41)의「裸」는「体 全体」로 바꿔 말할 수 있어, 언뜻 身體部分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으나,「体」라는 어떠한 사물의 개념보다는「脱いでいる狀態」라는 抽象的인 概念이 강하게

dCollection @ chosun

狀態 등의 側面的인 意味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42)의「日本」과「回り」는, 意味的으로 사물과 그 사물의 狀況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Z가 X에 있어서 非分離的인「側面」을 나타내는 경우「所有者受動」의 主語는 動詞에 의해 나타나는 動作이나 作用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直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受動文을 만들 수 있는 動詞는 일반적으로 日 · 韓 兩言語 모두 인간의 내면적인 性質・模樣・態度를 나타내는 것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의 한정된 動詞를 들 수 있다. 이에 對應하는 韓國語도 日本語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 할 수 있지만, 受動 형식에 대해서는 모두「接尾辭」에 의한 受動 형식만이 허용된다.

3. 2. 2 X와 Z가 分離可能한 意味關係를 갖는 類型

X와 Z가 分離可能한 소유관계를 가지는 유형의 所有者受動은, 그 속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韓國語에서는 二重目的格 구문을 대당 능동문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所有者受動文의 성립이 거의 不可能하거나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에 반하여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은 상기의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소유관계를 가지는 유형의 所有者受動과 거의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된다.

3. 2. 2. 1 Z가「所有物」인 類型

(43) おしまいには所持していたチケット四枚を彼女に奪われた。[14] ＜手紙＞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側面으로 다루고 있다.

14) 丁(1999)은, 「奪う」라고 하는 동사는 [が、から、を] 격을 필요로 하는 3항동사로서도, [が、を]의 2개의 격을 필요로 하는 2항동사로서도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 관계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예문의 경우는, 2항동사의 격 체제를 취하며, 3항동사로서는 무리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僕は彼女にお金を奪われた。　　僕は彼女に心を奪われた。

dCollection @ chosun

(←彼女が(私)のチケットを奪った。)

(44) 私は子供のころから絵を褒められていた。 ＜父＞
(←(誰かが)私の絵を子供のころから褒める。)

(45) ふいに仁子は靴のかかとをとられてよろけた。 ＜いつか＞
(←(誰かが)仁子の靴のかかとをとる。)

(46) 父親はいつもいじめっ子たちにからかわれ、ズボンとパンツを脱がされている。脱がせたパンツをいじめっ子たちは井戸みたいな形をした地獄の口に放り込む。＜いま会いにゆきます＞
(←いじめっ子たちが父親のズボンとパンツを脱がす。)

예문 (43)~(46)에서 알 수 있듯이 主語 X와 ヲ格 名詞句 Z는, 사람과 그 所有物이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分離可能한 의미관계를 지닌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문 (43)의「話者(私)」와「チケット四枚」 (44)의「私」와「絵」 (45)의 「仁子」와「靴のかかと」 (46)의「父」와「ズボンとパンツ」에서는 사람과 分離可能한 所有物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예문 (46)에 나타나는 Z는 X의 付着物[15]이라는 意味 關係를 가지고 있다.

3. 2. 2. 2 Z가「親族關係」인 類型

(47) あなたに恋を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だけれど、なんだか父親を取られるようなさびしい感情に支配されてしまって、リリカの胸の内に嫉妬の嵐が吹き荒れていました。

→彼女が僕からお金を奪った。 →??彼女が僕から心を奪った。
→彼女が僕のお金を奪った。 → 彼女が僕の心を奪った。
따라서 本稿에서 「奪う、取る」와 같은 동사는, X와 Z가 分離不可能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될 수 있는 격 체제, 즉 二項動詞로써 다루도록 하겠다.

15) 丁(1999)은、입고 있는 옷, 착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付着物」라 칭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 (誰かが)リリカの父親を取る。)　＜愛をください＞

(48)　あるものは子を救われ、あるものは親を助けられ、あるものは兄弟を救われた。＜平賀＞
(←(誰かが)あるものの子を救って、(誰かが)あるものの親を助けて、(誰かが)あるものの兄弟を救った。)

(49)　それでも城木はやはり身内をほめられたような嬉しさを覚えた。　＜楡家＞
(←(誰かが)城木の身内をほめる。)

예문 (47)의「リリカ」와「父親」 (48)의「あるもの」와「子」, 「あるもの」와「親」, 「あるもの」와「兄弟」 (49)의「城木」와「身内」は、X와Z가 親族 關係라는 所有 關係를 맺고 있는 類型이다.

이와 같이「所有物」및「親族關係」를 나타내는 X와 Z명사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所有關係가 分離可能한 의미 관계를 가진 類型인 경우,「所有者受動」의 Z는 動詞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주어 X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間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以下에서는, X와 Z 사이에서 볼 수 있는 所有關係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용례의 분석을 통하여 X를 有情名詞인 경우와 無情名詞인 두 경우로 나누어, X와 Z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미관계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3. 2. 3 X와 Z 사이에서 볼 수 있는 語彙的 意味關係

X명사구와 Z명사구 사이에 어떠한 의미관계가 보여 지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所有者受動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X가

dCollection @ chosun

유정명사일 경우와 무정명사일경우로 나누어 X와 Z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3. 2. 3. 1 X가 有情物인 경우

a. X=有情物, X와 Z의 관계가 分離不可能한 「部分」

X가 有情物이며, Z와 X와의 의미 관계가 分離不可能한「部分」의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身體部分」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身体部分＞을 나타내는 명사[16)]

「身体部分」을 나타내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身体中、身柄、下半身、身体の中、全身、上体、身、半身、肉体、急所、おかっぱ頭、頭の神経、頭、後頭部、脳天、首根っこ、首筋、首、顔、頬、目、瞼、鼻先、鼻づら、口、上唇、耳、舌、胸、背、背中、横腹、腹、腰、しっぽ、おしり、手(片手、両手)、小手、手首、腕、脚、足、肩足(片足、両足)、足首、指、手の指、指の腹、爪なしの親指、脳、肉、筋肉、胃、肝、臓、心臓、皮膚、表皮、髪、眉毛、骨、肋骨、くるぶし、膝の骨、膝がしら、歯、古い歯、前歯、爪、角、血、眉間、上唇の肉筋、涙、かさぶた、肘、尻の手……등을 들 수 있다.

(50) 疑問をはさむ間もなく、<u>左腕</u>をゴムチューブで巻かれた。マユミという看護婦が注射器を突き刺す。 ＜空中＞

(←看護婦が(私)の左腕を巻く。)

(51) 透はそのまま目をとじた。詩史に、<u>頭</u>を抱かれながら。 ＜東京タワー＞

(←詩史が透の頭を抱く。)

---

16)「身体部分」나타내는 명사는 頭部、胴体、手 ·足、内臓·膜·筋肉、皮·毛、骨·歯·爪など、血·分泌物·排出物라는 語彙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日本語語彙体系1』岩波書店

dCollection @ chosun

b. X=有情物, X와 Z의 관계가 分離不可能한 「側面」

X가 有情物일 때, Z와 X와의 의미 관계가 分離不可能한「側面」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事」를 나타내는 명사와「抽象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事을 나타내는 명사＞[17]

内心、内意、善意、意向、空想、心、良心、競争心、気力、力情、情熱、感情、気持、気、神経、意識、注意、不意、興味、好奇心、希望、欲望、期待、意欲、不快感、誇り、毒気、胸の中、頭の中、胸、表情、名前、名、言葉、うそ、軽率、失敗、音、足音、変装、生活、いたずら、声……등을 들 수 있다.

(52) 誰にも空想を中断されることなく、一人でいろいろなことを想像してみたい。　＜愛をください＞
(←誰かが(私)の空想を中断する。)

(53) こんな感情を見抜かれたら、どんなに相手に気味悪かられるかということを…　＜いつか＞
(←相手が(私)の感情を見抜く。)

(54) 由記は皿に気を取られることなく、笛をピーと鳴らしていたガスを止め、二階へ駆け上がった。
(←皿が由記の気を取る。)　＜太陽のうた＞

＜抽象的인 関係를 나타내는 명사＞[18]

時間、最後、将来、姿、調子、弱み、盲点、素性、地位、年齢、すべて、なかば、視界、裏、両側、極秘の事実、秘密、前後、急所……등을 들 수 있다.

(55)さらに、自分が泣いていた姿をこの子に見られ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思ったら、急に心

17)「事」를 나타내는 명사는 「心、感覚、感情、表情、意向、言動、動作、生活、行動、作用、音、におい」등의 語彙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다. 『日本語語彙体系1』岩波書店
18)「抽象的인関係」를 나타내는 名詞는 存在、類･系、関連、性質、状態、形状、数量、場、時間이라는 語彙的인 意味를 가진 것이다. 『日本語語彙体系1』岩波書店

dCollection @ chosun

配になった。　＜太陽のうた＞

(←この子が自分の泣いていた姿を見た。)

(56)　強盗に秘密を知られた二人がどうなるのか　　＜白い人＞

(←強盗は二人の秘密を知る。)

(57)　考えているのを邪魔されるのは、首を絞められるより苦しいんだ。＜博士の愛した数式＞

(←(誰か)が(私)の考えているのを邪魔する。)

c. X=有情物, X와 Z의 관계가 分離可能한 所有物

X가 有情物일 때, Z와 X와의 의미 관계가 分離可能한「所有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人工物」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人工物을 나타내는 명사＞[19]

タイ、袖、靴のかかと、裾、靴、服、スカート、ズボン、パンツ、義歯(入れ歯)、チケット、バック、袋、絵……등을 들 수 있다.

(58) ヒロシは後ろから、鳴夫に服の裾を引っぱられてよろけて「なんだよう」鳴夫に食べてかかっている。　＜誰か＞

(←鳴夫がヒロシの服の裾を引っぱる。)

(59)　私は子供のころから絵を褒められていた。　＜父＞

(←(誰かが)私の絵を褒める。)

d. X=有情物, X와 Z의 관계가 分離可能한 親族關係

19)「人工物」을 나타내는 名詞는 物品、資料、衣料、建造物、道具、薬品이라는 語彙的인 意味를 지닌 명사이다.『日本語語彙体系1』岩波書店

dCollection @ chosun

X가 有情物일 때, Z와 X와의 의미 관계가 分離可能한「親族關係」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親族」을 나타내는 名詞 등이 온다.

＜親族을 나타내는 명사＞

父親、親、兄弟、身内、夫、妻、孫、祖父、祖母、父、母……등을 들 수 있다.

(60) あなたに恋をしているというわけだはないんだけれど、なんだか父親を取られるようなさびしい感情に支配されてしまってリリカの胸の内に嫉妬の嵐が吹き荒れていました。 ＜愛をください＞
(←(誰かが)リリカの父親を取る。)

(61) 第一に、野村は、自分のカツラを気づかれていないとでも思っているのあろうか。
＜空中ブランコ＞
(←(誰かが)リリカの父親を取る。)

3. 2. 3. 2 X가 無情物인 경우

a. X=無情物, X와 Z의 관계가 分離可能한 所有物

X가 無情物일 때, Z와 X와의 의미 관계가 分離可能한「所有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部分」을 나타내는 名詞와「人工物」을 나타내는 名詞 등이 온다.

＜部分을 나타내는 名詞＞

肉、頭蓋骨、薄皮、脚、葉、水……[20]등을 들 수 있다.

(62) ただれた皮膚が薄皮をむかれるように痛んだ。 ＜砂＞
(←(誰かが)皮膚の薄皮をむく。)

20) 각각의 X에 体、死体、唇、皮膚、机、木、シャワー와 같은 無情物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dCollection @ chosun

(63) 木は一枚きりのうすい葉をいまにも風にもぎとられ、とばされそうに見えた。 ＜ノブヨ＞
(←風が木の葉をもぎとる。)

＜人工物을 나타내는 名詞＞[21)]
屋根、壁、病院、道路、服……[22)]등을 들 수 있다.

(64) 病院を焼かれた医学部の窓の破れた仮教室のなかで、時として自転車にのって仁川の白い路を宝塚に… ＜黄色い人＞
(←(誰かが)医学部の病院を焼く。)

b. X=無情物, X와 Z의 관계가 分離不可能한 側面

X가 非情物일 때, Z와 X와의 의미관계가 分離不可能한「側面」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事」를 나타내는 명사와「抽象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명사 등이 오는 경우가 많다.

＜事를 나타내는 명사＞
名、動き、興味、弱点、かおり……[23)]등을 들 수 있다.

(65) この城下町は近年水郷の町として名を知られて来た。 ＜或＞
(←町の名を知る。)

(66) ユリの花はその香りをかき乱された。
(←ユリの花の香りをかき乱す。) ＜ツキノ＞

---

21)「人工物」을 나타내는 명사는 物品、資料、衣料、建造物、道具등의 語彙的인 意味를 지닌 명사이다.『日本語語彙体系1』岩波書店
22) 각각의 X에 家、医学部、市場、人形와 같은 無情物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23) 각각의 X에 町、時、事件、空港、花와 같은 無情物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dCollection @ chosun

＜抽象的인 関係를 나타내는 명사＞

心臓、首、脳、行く手、周囲、四方、南側、まわり、根本……[24]등을 들 수 있다.

(67) 彼女の家は四方を石垣で囲まれた。 ＜アツ＞
(←彼女の家の四方を石垣で囲む。)

(68) 池のような小さな入江はその周囲を岩に囲まれてた。 ＜運転＞
(←入江の周囲を岩に囲む。)

以上에서 日本語「所有者受動」의 構文的・意味的인 特徵에 따라 지금까지 所有者受動이 受動이라는 體系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XがYにZを~される←YがXのZを~する」라는 表面構造를 통해「所有者受動」의 체계 및 위치를 설정하였다.「所有者受動」이란, X와 Z와의 의미관계에 있어서 分離可能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受動文의 주어가 動詞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를「直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으로 보았으며, 受動文의 주어가 動詞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를,「間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으로 分類할 수 있었다. 또한 X명사구와 Z명사구 사이에 어떠한 의미관계가 보여 지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所有者受動의 데이터를 기초로, X가 유정명사일 경우와 무정명사일경우로 나누어 X와 Z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3. 3 韓國語 所有者受動의 位置設定 및 下位分類

다양한 입장에서 研究되어지고 있는 日本의 所有者受動에 비해, 韓國의 경우는 아직 日本語의「持ち主の受身」에 해당하는 所有者受動에 대한 정확한 用語가 정립

24) 각각의 X에 家、部落、村、数台の車、入江、彼女の家、戸、日本、言葉과 같은 無情物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dCollection @ chosun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는「목적어 있는 피동」또는「목적격 피동문」이라고 하는 表現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韓國語 所有者受動에 관한 從來의 대표적인 硏究를 살펴보면

이상억(1970)은 所有者受動文의 受動動詞(피동사)를 "他動 被動詞"라 하였으며, 受動文에도 目的語를 갖는 受動文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김영일(1980)은 被動文의 구조적인 特徵에 따라「單純被動文」,「重主語被動文」,「間接被動文」의 3가지 形態로 구분하고, 被動文에서 目的語를 취하는 被動詞를 술어로 갖는 문장을「間接被動文」이라 定意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69) 용수는 가시에 손을 찔렸다.

이때, 主語와 目的語는「所有-從屬」의 관계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익섭 · 임홍빈(1983)은 원래 受動文은 자동사문이므로 目的語를 취할 수 없으나, 二重目的語 구문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문이 受動文이 될 경우 하나의 目的語가 受動文에 그대로 남게 되어 만들어지게 되는 예외적인 受動文으로 간주하고 있다.

(70) 토끼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被動文)
(71)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能動文)

被動文 (70)과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 (71)을 비교했을 때 (71)의 예문에서 2개의「를」성분 중, 더 주된 역할을 하는 被動主 하나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目的語 형식으로 남겨 문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를」성분 중, 어느 쪽이 주된 역할을 하는 성분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dCollection @ chosun

송복승(1995)은「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대부분은 대응하는 能動文에서「讓渡不可能한 소유관계(分離不可能한 所有關係)」를 이루는 屬格名詞句가 예문(73)과 같은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 屬格關係에 있는 두 개의 명사구가 동시에 目的格으로서 이용되어져 예문(72)와 같이 된다하였다. 이러한 二重目的語를 구성하는 動詞가 受動化에 의해 두 개의 目的語 중, 하나는 被動文의 主語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目的語로서 그대로 잔류하여, 能動文의 目的語가 被動文으로 잔류하게 된다고 하였다.

(72)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73) 개가 토끼의 다리를 물었다.
(74) 토끼의 다리가 개에게 물렸다.
(75) 토끼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우인혜(1997)는 일반적으로 韓國語의 所有者受動은 二重目的格구문을 상정할 수 있는 능동 대당문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대응하는 基本文에 존재하는 X와Z의 2개의 目的格名詞句 중, 後者의 目的格 Z가 受動文에 그대로 잔류하는 형태로 형성되는 受動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목적격 Z는 受動文의 주어인 X를 한정하는 요소일 뿐 진정한 目的語가 아니므로 格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대로 受動文의 目的格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논하고 있다.

(76) 아기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76') 개가 아이를 다리를 물었다.
(76") 개가 아이의 다리를 물었다.

(77) 영희가 철수에게 발을 밟혔다.
(77') 철수가 영희를 발을 밟았다.
(77") 철수가 영희의 발을 밟았다.

dCollection @ chosun

이는 二重目的格名詞句인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 관계를 가지며, 二重目的格構文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문장임을 나타낸다. 예문 (76')의 「아이」와 「다리」와의 관계, 예문 (77')의「영희」와「발」과의 의미관계가, 각각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서 (76)(77)과 같은 受動文을 성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진 다음과 같은 경우는 所有者受動을 形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의 예문 같은 경우는

(78) *영희는 개에게 친구를 물렸다.
(78') *개가 영희를 친구를 물었다.
(78") 개가 영희의 친구를 물었다.

(78')은 X와 Z, 즉「영희」와「친구」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지며, 二重目的格構文을 형성 할 수 없다. 따라서 (78')은 표면적으로는 소유자 수동의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린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어에 대응하는 능동문에 있어서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지는 경우, 所有者受動文이 성립 가능 하지만, X와 Z가 分離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二重目的格構文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所有者受動」이 성립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유혜원(1999)은 所有者受動을 形態的, 構文的, 意味的인 측면에서의 特徵에 근거하여 所有者受動을 전형적인 受動으로 파악하였으며, 所有者受動文을 형성할 수 있는 動詞에 대하여 언급함과 동시에, 이러한 類型의 受動은 二重目的格 구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개의 名詞句 사이에 보이는 意味的 양상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정택(2003)은 受動文은 自動詞文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被動文 역시 他動詞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所有者受動文에 나타나는 '-를'을 일반 타동사문에 나타나는 '-를'과 마찬가지로 目的格 助詞로 파악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남수경(2005)은 所有者受動文에 대하여 Z가 취할 수 있는 격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受動文의 被動者 중의 하나인 Z가 '을/를' 뿐만 아니라, '이/가'를 취할 수 있는 類型과 '을/를' 만을 취할 수 있는 類型으로 나누어, 이 중 前者의 類型을 다시 '을/를' 을 취하는 명사구 Z의 생략 여부에 따라 所有者受動文('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韓國語에서도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에 해당하는「목적어 있는 피동」에 관한 意見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硏究에서 論議의 중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所有者受動文에 나타나는「을, 를」에 대한 論議, 즉「을, 를」에 대해서 대격조사 또는 목적격 조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와, 둘째 Z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취하는 조사「을, 를」과 「이, 가」의 치환 관계에 관한 論議, 그리고 韓國語 所有者受動은 二重目的語 구문으로 상정할 수 있는 대당 능동문으로부터 형성된다고 하는 論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는 韓國語 受動 전반에 있어서의 所有者受動의 위치 설정, 또는 所有者受動에 나타나는 '-을(를)'의 존재 규명 등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므로, 韓國語의 所有者受動은 어떠한 어휘적 의미를 갖는 動詞에 의해 형성되며, X와 Z의 意味的 양상에 따른 所有者受動의 下位類型 및 의미 · 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所有者受動의 下位類型 및 位置設定에 대해 살펴보았다.

dCollection @ chosun

第 4 章. 日·韓 兩言語 所有者受動의 對照研究

日 · 韓 兩言語의 「持ち主の受身」와「목적어 있는 피동」에 대한 對照 研究를 다룬 학자로는 李文子(1979)를 비롯하여 一齊藤美智子(1993), 鄭寅玉(1994), 丁意詳(1999)등을 들 수 있다.

李文子(1979)은 日 · 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구문적 · 의미적인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고찰하고, 동작을 받는 피소유물의 성격에 따라 「所有者受動」의 성립 여부와 함께, 受動文에 나타나는 韓國語의 술어동사의 형태로 <접미형>과 <어휘형>만이 나타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것은「所有者受動」을 만들 수 있는 動詞의 성격과, 所有者와 被所有者와의 관계에 따라 受動文의 성립이 달라지며, 술어동사의 형태 또한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一齊藤美智子(1993)은 日本語의「れる · られる」의 受動이 韓國語에서 어떻게 表現되어지는 가에 대하여 나츠메소세키의「坊っちゃん」의 번역서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內容面에 있어서는 앞서 서술한 李文子(1979)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對照研究의 대상이「坊っちゃん」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교를 일반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鄭寅玉(1994)은 日本語 교육에 있어서의 日 · 韓 兩言語의 對照研究의 일환으로서 受動文을 對象으로하여, 日本語 교과서의 受動文의 용례에 韓國語 譯을 달면서 韓國語 所有者受動(목적어 있는 피동)의 성립 기준에 대하여 술어 동사의 의미와 「所有主」와「所有物」과의 관련에 대해 고찰하였지만, 日本語의 和語動詞에 대한 韓國語 對應 關係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受動 형식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丁意詳(1999)은 日 · 韓 兩言語에 있어서 「Xが(가)Yに(에게)Zを(를)～られる(피동사)」←「Yが(가)Xの(의)Zを(를)～する(능동사)」라고 하는 표면구조를 가진 受動文은 X와 Z의 意味적인 상관관계의 차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直接受動文과 間接受動文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X와 Z가 의미상, 非分離的인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直接受動으로 보며, 分離可能한 관계를 가진 경우는 間接受動文으로 취급하였다. 그 외에도 丁(1999)은 日本語의「持ち主の受身」와 韓國語의「목적어 있는 피동」의 하위유형의 分析을 통해 兩言語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각국의 所有者受動에 관한 硏究와 비교해, 日 · 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관한 對應 關係 및 對照 分析에 대한 硏究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日 · 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對照 比較 및 「Xが(가)Yに(에게)Zを(를)～られる(피동사)」←「Yが(가)Xの(의)Zを(를)～する(능동사)」라는 표면구조를 가진 受動에 관하여, X와 Z명사구의 관계가 分離可能한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第3章에서 日 · 韓 兩言語의 소유자 수동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所有者受動을 크게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각각의 類型의 特徵을 통하여 日 · 韓 兩言語 의 所有者受動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을 모두 韓國語 受動形으로 表現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韓國語로 對應 可能한 表現과, 對應 不可能한 表現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日本語 受動의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所有者受動」의 위치설정에 관한 從來의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에 착안하여, 日本語「所有者受動」의 분류 방법 및 위치 설정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本稿에서의「所有者受動」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所有者受動」의 세부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日·韓 兩言語의「所有者受動」의 구문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에 관하여 第3章의 내용을 근거로 比較 分析한 결과

dCollection @ chosun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所有者受動」이란「Xが(가)Yに(에게)Zを(를)～られる(피동사)」←「Yが(가)Xの(의)Zを(를)～する(능동사)」라는 표면구조를 가진 受動文을 말하며, 이러한 유형의「所有者受動」[25]은, 구문적으로 基本文의 ノ格 構成要素 X(所有者)가 受動文의 ガ格으로 전환되고, 基本文의 ヲ格 構成要素 Z는 受動文에 그대로 잔류하여 ヲ格으로 남아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는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시말해 兩言語는 對應하는 基本文에 비해 구문적으로 必須項의 수가 하나 증가한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構文的인 면에서 보면 日·韓 兩言語 모두 間接受動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밖에도 X와 Z의 의미관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日本語의 경우는 의미관계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韓國語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 두 개의 명사구가 分離不可能한 경우에만 所有者受動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本稿에서의 고찰을 통해 分離可能한 경우에도 日本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受動으로 성립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意味的으로는 X와 Z名詞句가 서로 分離可能한지 아니면 分離不可能한지의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 X와 Z와의 所有關係에서 나타나는 ヲ格 名詞句 Z의 意味的 屬性의 차이에 따라 部分, 側面, 所有物, 親族關係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었다. 이는 Z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부분인 경우와 사물과 사물과의 分離不可能한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非分離的인「部分」으로 구분하며, Z가 사람(동물)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性質, 狀態, 感情, 狀況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非分離的인「側面」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Z가 X의 所有物인 경우는 分離的인「所有物」로 구분하고, Z가 肉親이나 親族인 경우에는 分離的인 「關係者」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Z가 非分離的인「部分」과「側面」의 경우「所有者受動」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主語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直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으로 분류하였으며, Z가 分離的인「所有物」과 「關係者」인 경우에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Z이고, 受動文의 主語 X는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間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으로 分類하였다.

---

25) Z격은 일반적으로 を격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工藤(1990)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格이 오는 경우도 있다. (花子が太郎に頭から水をかけられる←太郎が花子の頭から水をかける)

dCollection @ chosun

이는 日 · 韓 兩言語 모두 술어동사를 나타내는 움직임이 被動者의 身體 일부에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分離不可能한 관계에 있는 所有者인 受動文의 主語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Z가 X의 分離不可能한「部分」인 경우의「所有者受動」은, 主語가 그 동사에 의해 나타난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直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이라 말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일부분을 所有者受動文의 主語로 세운「所有者受動」은 日 · 韓 兩言語 모두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YがXのZを～動詞」文에 있어서 Z가 취하는 조사「ヲ」에 대한 韓國語助詞는 일반적으로「을,를」에 對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Z가 유생물의 X와 分離不可能한 신체 일부분인 경우에는「을,를」을 대신해서 주격 조사「이,가」로 치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하나의 문장 속에 主格이 병행하게 되는 「二重主格構文」의 형태가 可能한 것이 日本語의 所有者受動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dCollection @ chosun

第 5 章. 結　論

本稿는 日·韓 兩言語의 문법 범주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受動 表現 가운데서, 受動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日·韓 兩言語의「所有者受動」의 對照 分析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관한 對照 硏究를 위해 所有者受動에 관한 논지에 앞서, 日·韓 兩言語 受動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受動의 전반적인 하위유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所有者受動에 있어서의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견해에 대한 차이점 및 所有者受動의 위치 설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토대로, 日本語 受動의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所有者受動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위치설정에 대하여 고찰 해보고,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에 對應하는 韓國語 所有者受動에 관하여 比較 對照를 통하여 所有者受動의 위치 설정을 보다 분명히 함과 동시에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에 대하여 그 特徵과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구문상 · 의미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유사성을 보이는 韓國語의 所有者受動(목적격 피동)이 어떠한 구문적, 의미적인 特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전형적인 類型과 주변적인 類型을 각각 分析하여, 차이점을 보이는 주변적인 유형, 즉 日本語의 全體 명사와 部分 명사가 分離可能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 덧붙여 韓國語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이 不可能하다고 여겨지는 유형이 실질적으로는 성립이 可能한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유형이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립 要件등에 대하여 실례 분석을 통하여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日本語「所有者受動」의 세부유형의 설정에 있어서는 全體와 部分에 해당하는 X와 Z의 名詞句가 分離可能한지, 不可能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X와 Z의 명사구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적인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X와 Z의 명사구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갖는 경우, 이들 유형을 세분

dCollection @ chosun

화 해보면 X에 대한 Z의 관계가「部分」과「側面」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下位分類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X와 Z의 명사구가 分離可能한 의미관계를 갖는 유형으로써, 이들 유형을 세분화해보면 X에 대한 Z의 관계가「所有物」과「親族關係」라고 하는 유형으로 하위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지는 유형과 X와 Z가 分離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지는 유형의「所有者受動」을 意味的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前者는 動詞에 의해 表現되는 움직임이나 작용으로부터 受動文의 主語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直接受動에 가까운 受動文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後者는 動詞에 의해 表現되는 움직임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Z이고, 受動文의 주어는 間接的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間接受動에 가까운 受動文으로서 파악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X명사구와 Z명사구 사이에 어떠한 의미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X가 유정 명사일 경우와 무정 명사일 경우의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X와 Z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적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음으로 日·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比較分析에 앞서 韓國語의 「所有者受動」에 대해 고찰하였다. 韓國語의 「所有者受動」은, 구문적인 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중목적격구문이 성립 가능한 기본문의 변형에 의해 성립되는 受動, 즉 對應하는 기본문에 존재하는 X와 Z의 두 목적격 명사구 중, 진 목적어인 前項의 목적격 명사구 X가 受動文의 主語가 되고, 가 목적어인 後項의 목적격 명사구 Z가 목적격을 취한 채로 受動文에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의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의 목적격 명사구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특징을 보이는 受動이라 규정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兩言語의「所有者受動」에 관한 구문적, 의미적인 면에서의 고찰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日·韓 兩言語의「所有者受動」에 관해 對照 分析을 실시하였다. 日本語의「所有者受動」과 韓國語의「목적어 있는 피동」이라고 하는 所有者受動은 표면적인 側面에서는「Xが(가) Yに(에게/한테) Zを(을/를)~受動動詞(피동사)」라고 하는 구문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문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고찰해

dCollection @ chosun

보면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所有者受動」은,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개의 受動文의 境界線上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直接受動」과「間接受動」사이에 위치하고 있는「所有者受動」은 그 위치설정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受動文을 만들 수 있는 動詞의 형태적인 特性 및 日本語에 對應하는 韓國語 所有者受動에 대하여 의미적 · 구문적인 側面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게 되었다.

日 · 韓 兩言語의 所有者受動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표면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Xガ(가)Yニ(에게)Zヲ(를)～ラレル(피동사)←Yガ(가)Xノ(의/를)Zヲ(를)～スル(기본동사)」의 구문을 통해 표면 구조상으로는 日 · 韓 兩言語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日本의「所有者受動」에 해당하는 韓國語의「목적어 있는 피동」은 X와 Z의 관계가 分離不可能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이중 목적격 구문의 변형을 통해 所有者受動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日本語의「所有者受動」은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미적인 면에서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兩言語를 X와 Z의 의미 관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日本語「所有者受動」의 경우는 X와 Z사이에 보이는 의미관계에는 제약이 없는데 반해, 韓國語의「목적어 있는 피동」은 X와 Z사이에 보이는 의미 관계에 제약이 있어, 그 2개의 명사구가 分離不可能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 所有者受動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하지만 本稿에서의 고찰을 통해, X와 Z가 分離可能한 관계에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日本語의 경우와 같은「所有者受動」이 성립 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은 X와 Z의 分離可能 여부와는 상관없이 受動文이 성립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日本語의 所有者受動은 必須 構成要素에 있어서 기본문의 必須構成要素의 수 보다 그 수가 증가하였지만「所有者受動」의 주어는 기본문의 動詞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直接受動」과「間接受動」의 特徵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韓國語 所有者受動에도 예외의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중목적격구문을 상정할 수 있는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형성되며, 대응하는 능동문에 존재하는 X와 Z의 2개의 目的格 名詞句 중 진정한 目的語인 前項의 目的格 名詞句 X

dCollection @ chosun

가 능동문의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면, 後項의 목적격 명사구 Z는 前項의 목적 명사구 X를 한정하는 要素로서, 진정한 目的語가 아니기 때문에, 格의 교환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그대로 능동문의 目的語가 잔류하는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二重目的格構文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基本文에서 前項의 목적격 명사구 X와 後項의 명사구 Z사이에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本稿에서는 日·韓 兩言語의 受動의 定意 및 體系와 관련한 先行硏究를 중심으로 의미 · 구문적인 側面에서 受動 表現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所有者受動에 관하여 日·韓 兩言語의 對照分析을 연구의 주된 테마로 고찰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参考文献】

Ⅰ. 단행본(単行本)

鈴木重幸(1972),『日本文法・形態論』, むぎ書房

三上章 (1972), 『現代語法序説』, 刀江書院, くろしお出版

松下大三郎(1974),『改選標準日本文法』, 中文官書店, 勉誠社

(1989),『標準日本口語法』, 中文官書店, 勉誠社

堀口和吉(1982),「日本語の受動表現」『日本語・日本文化』11,大阪外国語大学研究留学生別科

寺村秀夫(1982),『日本語シンタクスと意味Ⅰ』, くろしお出版

(1987),『日本語の文法(上)』, 国立国語研究所

佐久間鼎(1983),『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厚生閣.増補版,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1987),「受動表現と主観性」『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森山卓郎(1988),『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 明治書院

森田良好(1977),『基礎日本語』, 角川書店

(1981),「受身・使役の言い方」『講座日本語教育9』,早稲田大学教育研究所

(1990),『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工藤真由美(1990),「現代日本語の受動文」『ことばの科学 4 』,言語学研究会編, むぎ書房

仁田義雄(1992),「持ち主の受身をめぐって」『藤森ことば論集』, 精文堂

山内博之(1997),「日本語の受身文における「持ち主の受身」の位置づけについて」『日本語教育』92号

최현배 (1959) 『우리말본』 정음사

고창수,서정곤(1991)「목적어 있는 피동문」『주시경학보제7집』 합출판사

서정수(1996),『국어문법』 수정증보판, 한세본

송복승(1995),『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보고사

우인혜(1997),『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이광수(2000),「일본어 보이스에 관한 연구」

김성규(2003),『日本語受動文の研究』 불이문화

허명자(2004),『日本語と韓国語の受動文の対照研究』 ひつじ書房

dCollection @ chosun

Ⅱ. 學位 및 學術誌 掲載 論文

山内博之(1997),「日本語の受身文における「持ち主の受身」の位置づけについて」,『日本語教育』92号

정의상(1999), 「「持ち主の受身」と“목적어 있는 피동”」, 『日語日文学研究』34号, 韓国日語日文学会

(2000), 「日本語受身文の体系と下位類型」, 『日本学報』45号, 韓国日本学会, p.163-181

이광수(2000), 「日本語 보이스에 관한 연구」博士学位論文, 中央大 大学院

배은정(2000), 「持ち主の受身とその異なる形について」, 『日語日文学』第14輯, 大韓日語日文学会

유장옥(2002), 「日本語 受動의 研究와 分流에 관한 考察」, 『日本語文学』第18輯, 日本語文学会

(2003), 「持ち主の受身」와「目的格 被動」의 対照研究」, 『日本語文学』p.89-122

신석기(2004), 「韓国語와 日本語의 受動 表現에 관한 対照研究」, 博士学位論文, 檀国大 大学院

권기수(2004), 「日·韓両国語の受身態の対照研究 」, 博士学位論文, 東北大学

權奇洙(2004), 「日・韓両国語の受身表現の関わり合いについて 」, 日語日文学会

大塚俊秀(2004), 「「持ち主の受身」は直接受身か間接受身か?」,『日本学報』第58輯, 韓国日本学会

d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전공	학 번	2006821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이 미 지 한문 : 李 美 智 영문 : LEE MI JI				
주소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3동 297-4				
연락처	010-7165-8091 E-MAIL : image35@naver.com				
논문제목	한글: 일·한 양언어의 소유자수동에 관한 연구 영문: A Comparative Study on Possessive Passive of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 년 8월 일

저작자 : 李 美 智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dCollection @ chosun